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朴先榮
印刷人 鄭九鎬
主幹 權奇悰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部長 張義植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慶州大學
주소: 경북월성군현곡면
금장리707(681)
전화: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참된 自律能力 배양에 최선"

지난2일 총·부학생장 선거 마쳐

총학생장에 張耘군 당선

「空約」아닌 「公約」위해 노력해야

제10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에 張耘(농문과·3) 군이 각각 당선되었다. 지난 2일 각학과대표로 구성된, 2백17명의 선거인단이 학가한 간운데 학림관 소강당에서 실시된 총부학생장 선거에는 총학생장의경우, 3차에 걸친 투표끝에 張耘군이 2명이 입후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총학생장에 득표 당선되었다.

오전11시부터선거선언, 격려사, 입후보소개, 소견발표, 참관인소개, 투·개표실시순으로 진행된이날 선거에서 朴先榮학생처장은 격려사를통해 『공정한 선거를통해 민주적역량을 최대한 발휘 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소견발표에서 각입후보자들은 학회써클연합회 구성, 후생복지시설직영화, 동국문학계승발전방안, 「학·자치」 공식인정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실시된 1차선거에서 총부학생장에 李炳洙군이 총2백17표중 과반수가 넘는 1백23표를 제치고 총학생장선출로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못넘어 3차 투표결과 張耘군이 96표로 陳홍화(94표)군을 근소한 차로 눌러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선거인단의 실수로 무효표가多數나와 투표방법에대한재검토가 요청되기도했다. 한편 각단대 학생장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대학생장

▲佛敎大=오홍택(불교학과) ▲文科大=전희용(철학과) ▲理科大=오세찬(화학과) ▲法政大=공석 ▲經商大=김용균(경제학과) ▲農科大=권형준(농경과) ▲工科大=한권규(건축공학과) ▲師範大=정현식(체육과) ▲二部大=김종인(영문과)

경주대 학생장에 성금찬君 당선

한편 慶州大學「제6대 학도호국단 학생장선거」가 지난1일 오후2시부터 인문사회학관 소강당에서실시되어 설금찬(경영·3) 군이 제6대 학생장으로 당선되었다.

학기조정관계로 예년보다 약 한달 앞당겨 실시된 이날 선거는 일부 국가방위력 증대와 심신단련을 목적으로하는 이번 집체교육의 일정는 6월11일부터 16일까지는 상가족을 위한 20평형 15세대, 그리고 학장공관용 30평형 1세대로 구분되고 있다.

이번 아파트 준공으로 그동안 성건동 숙소와 기숙사에서 거주해오던 교직원들의 숙소난이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 거주 교수가 목금요일의 강의시간 집중현상도 2학기부터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아파트의 제반문제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운영을 맡게된다.

지난2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있었던 총·부학생장 선거장면.

써클재등록 최종 마감

법우회등 신규써클 6개등록

학생처에서는 지난 2일 신규써클을 포함한 써클재등록을 모두 마감했다.

이번 써클 재등록기간중에는 6개의 신규써클이 등록했는데 신규써클의 경우에는 8일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인가를받게 된다. 현재 등록한 신규써클은 학술연구회, 법우회, 사회과학연구회, 자연과학연구회, 동서사상 연구회등으로 지난해 등록한 9개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년의 경우, 신규등록한 9개써클이 모두 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어있어 인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개써클은 설립목적및 활동이 특정학과로 국한된 자연과학 연구회, 동서사상 연구회를 제외한 4개써클로 선출했다.

이번 써클 재등록기간동안에는 지난 2일 신규써클을 포함한 써클재등록을 모두 마감했다.

이번 발표된 내규는 학생처에서 지난 2일 내용을 수정보완한 새학생사내규를 지난5日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규는 지난3월2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학생및 학생회간부등 후보자격을 인정받고자하는자는 매학기17로써 한일고대문화를 규명하고 韓日關係史를 밝히게된다.

이번 학술조사단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黃壽永총장 ▲李龍範대학원장◇위원 ▲崔世和박물관장 ▲金思燁일본학 연구소장 ▲鄭明鎬불교미술학과 교수 ▲文明大불교미술학과 교수 ▲張忠植국립박물관장 ▲宋錫球공보부장 ▲千惠鳳성균관대 교수 ▲尹凡辛박물관 연구원 ▲大西修也 日本九州工科藝大교수

學事內規일부 보완

교무처 학생간부 자격조항등 신설

교무처에서는 금년부터 개설된 여름학기 운영계획을 보완, 지난5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내용은 조기졸업이기회를 부여하기위해 교양선택7과목을 증설하고 있는데 과목 및 시간은다음과같다.

▲세계 문화사=3학점(48시간(6월25일~7월16일) ▲논리학=3학점(48시간(6월25일~7월16일)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 ▲심리학=〃 ▲자연과학 개론=〃 ▲과학사=〃 ▲전자계산 이론=〃

한편 수강료는 1학점당 2만5천원(외국어 과목은 1만원)이며 10명이상인자로 신청은 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무처에서는 지난 2일 학점을 취득해야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초과취득학점은 종전의 4·0이상인자에 한해최고 3학점만 인정됐으나 이번학기부터 평균평점이 4·5이상인자는 최고5학점(총24학점)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교직과정의 경우는 84년이후 입학생은 교직과목을 총20학점이상 이수해야 된는데 종전의 16학점에서 4학점이 늘어났다.

부전공을 선택할 경우는 2학년 1학기때 부전공화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해 2학기 제출이 가능하다.

전공과정을 이수한후 취득할 제2전공학위를 가능한데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로 신청은 4학년 1학기에 지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과목중 55학점을 취득하고 최소한 2학기 이상 등록해야 된다. 조기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7학기 평균 평점이 4·0이상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1백40점취득 졸업논문 등과목) 을갖춘자로 해당학과의학위를 받을수 있다.

해당학년의 평균 평점이 1·5 미만이며, 취득학점이 24학점 미만일 때와 취득학점이 6학기동안 98학점미만일 경우는 유급조치 된다. 한편 유급자는 평균 평점이 2·0(성적등급C)이하의 과목은 재이수함을 원칙으로하고있다.

佛敎서적 1冊 國寶지정

禪宗永嘉集등은 보물로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관계서적 4점이 지난달 30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된 본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1462刊)이 국보 2백12호가 되었다. 또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世祖年間刊)이 보물 7백62호, 禪宗永嘉集(1464刊)이 보물 7백95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현재 본교는 도서관에서 국보 1점 보물 8점을 소장하고 있다.

(朝鮮圖書館)

「교대원」「東樂展」

東洋畫등 1백여점 展示

교육대학원 주최 제4회 「東樂展」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4일까지 5일간 세종문화회관 제1·3 전시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술교육 전공한도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서예, 공예등 각분야에 걸쳐 교수 및 대학원생 등 1백여점이 전시되었다.

敎大院生 154명의 작품 총 1백여점이 전시되었다.

한편 관계자는 이를 주최한 『東樂展』은 개최한지 햇수로 8년째 접어들면서 해마다 열기를 더해가고 있어 질적 향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양선택 7科目 증설

여름학기 조기졸업등 위해

교무처에서는 금년부터 개설된 여름학기 운영계획을 보완, 지난5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내용은 조기졸업이기회를 부여하기위해 교양선택7과목을 증설하고 있는데 과목 및 시간은다음과같다.

▲세계 문화사=3학점(48시간(6월25일~7월16일) ▲논리학=3학점(48시간(6월25일~7월16일)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 ▲심리학=〃 ▲자연과학 개론=〃 ▲과학사=〃 ▲전자계산 이론=〃

한편 수강료는 1학점당 2만5천원(외국어 과목은 1만원)이며 10명이상인자로 신청은 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무처에서는 지난 2일 학점을 취득해야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초과취득학점은 종전의 4·0이상인자에 한해최고 3학점만 인정됐으나 이번학기부터 평균평점이 4·5이상인자는 최고5학점(총24학점)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교직과정의 경우는 84년이후 입학생은 교직과목을 총20학점이상 이수해야 된는데 종전의 16학점에서 4학점이 늘어났다.

부전공을 선택할 경우는 2학년 1학기때 부전공화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해 2학기 제출이 가능하다.

전공과정을 이수한후 취득할 제2전공학위를 가능한데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로 신청은 4학년 1학기에 지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과목중 55학점을 취득하고 최소한 2학기 이상 등록해야 된다. 조기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7학기 평균 평점이 4·0이상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1백40점취득 졸업논문 등과목) 을갖춘자로 해당학과의학위를 받을수 있다.

해당학년의 평균 평점이 1·5 미만이며, 취득학점이 24학점 미만일 때와 취득학점이 6학기동안 98학점미만일 경우는 유급조치 된다. 한편 유급자는 평균 평점이 2·0(성적등급C)이하의 과목은 재이수함을 원칙으로하고있다.

第22回 東大新聞 學術賞 원고募集

學生들의 學究熱과 創作熱을고취하기 위해 제정, 매년 가을마다 알찬 수확을 거둬온 本社 學術賞은 올해로 22회의 연륜을쌓게 되었읍니다. 전통과 권위에 빛나는 本 學術賞에 東國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응모요령및 종목을 공고합니다.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創作文學賞
※各分野別장려상있음

◇應募要領

▲人文科學·社會科學·自然科學分野=2백字원고지60枚內外 지도교수의 추천및 所屬學科學術論文에 限함
◦創作文學分野=<詩>5편이상, <小說>60枚내외<戲曲>60枚내외
▲應募資格=本校및 慶州大學生에 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當選作발표와 함께 밝힘
▲施 賞=11월16일 예정. 상패및 상금20만원(本賞) 10만원(장려상)
▲作品제출기간=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當選作발표=11월13일(火) 本紙 紙上(예정) 1984년 6월 일

10月30日까지

東大新聞社

대학농구 출전

慶州大 교직원아파트 준공

총 54세대, 숙소난 해결

慶州大學「교직원 아파트 가마대거 입주함에 따라 수목금요일의 강의시간 집중현상도 2학기부터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아파트의 제반문제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운영을 맡게된다.

本校 이종우君 KBS사장상 수상

本校 이종우(二部大 전산과1년) 君이 「전국전자계산기 경연대회」공모부문에서 KBS사장상을 받았다. 李군은 지난 4월20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과학기술처가 주최한 同대회에 出品, 입상한 것이다.

8日 成大와첫경기

본교 농구부는 오는8일 잠실체육관에서 개막되는 「제5회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한다.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8월16일 기공, 만10개월만에 총공사비7억8천만원을들여 준공되는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건물로 총54세대를 수용하게 된다.

1차적으로 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5세대는 외부초빙강사용으로 제공된다. 평형별로는 2인이상가족을 위한 15평형 38세대와 4인이상가족을 위한 20평형 4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직원들을위한 일환으로 아파트는 내외의인사와 자재인 황학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시내 동천동아파트 현지에서준공식을갖는다.

교수동정

▲金鎭燦(신학과) 교수=지난달 31일 오후 4시 대구 효성여대 주최 「불교사상 대강연회」에 참석해 「전생과 윤회」주제로 강연.

▲南宣祐(도덕교학과) 교수=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84세계 하천박람회 수자원심포지움」참가차 미국 방문할예정.

▲辛孝善(식품영양과) 교수=지난달 26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춘계 임시총회 및 제32차 학술발표회」에 참석.

▲吳英珍(경주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내달 3일부터 8월25일까지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의한 일본어교원양성연수차 일본 방문 예정.

俞光震 교수

學術大會 연구발표

俞光震교수 학술부장에 취임

俞光震(법정대 정외과) 교수가 지난 1일부로 제3대 학술부장에 임명되었다.

洪榮伯교수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부장은 행정대학원장, 본사 주간 등을 역임했다.

各大學院 學生募集

一九八四學年度 後期 新入生募集을 다음과같이 公告함

大學院(晝間)

行政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課程·研究課程·行政管理課程
二、志願資格
①碩士課程·研究課程:學士학위 소지자(出身學科에 關係없음)
②行政管理課程:①政府各機關의 5級以上 公務員 ②各學校領官級 ③政府投資機關의 任員 ④私企業體의 任員
三、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四年六月四日(月)~一九八四年六月二日(水) 午後五時
四、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四年六月二十三日(土) 午後二時 本 大學院
五、銓衡方法:①碩士課程·研究課程:專攻·英語·面接 ②研究課程·行政管理課程:書類銓衡및 面接
典:①公務員및 여학생 전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반액)지급함 ②妥全管理學科 지망생으로서 소속부대장, 또는 재향군인회 회장이 추천한자는 들록금액의 반액면제함 ③국가고시·사법·행정 1·차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함 ④운동장학금·흥장장학금·동문회장학금등 각종장학 특전있음 ⑤실무경험자 우대함
電話 (直) 267-8574 272-5500 (交) 267-8131~9 (218)

經營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課程·研究課程·管理者課程
二、志願資格:①碩士課程·研究課程:四年制大學卒業者및 一九八四年三月卒業예정자 ②管理者課程:企業體의 中堅管理者및 勞組幹部
三、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四年六月十一日(月)~一九八四年六月二十日(水) 午後五時
四、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四年六月二十三日(土) 午後二時 本 大學院
五、銓衡方法:①碩士課程:專攻基礎·面接 ②研究課程·管理者課程=書類銓衡및 面接
典:公務員, 敎職員, 軍人, 勞組幹部(勞使協議會科에 한함)및 女學生 奬學金있음
電話 (直) 267-8140, (交) 267-8131~9 (221)

敎育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및專攻:碩士課程·研究課程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八四年六月十一日(月)~六月二日(水) 午後五時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八四年六月二十三日(土) 午後二時 本 大學院
四、銓衡方法:①碩士課程=專攻·面接 ②研究課程=書類銓衡및 面接
典:公·私立敎職員및 公務員에게 授業料全額의 奬學金지급, 其他 各種奬學金 있음.
電話(直) 269-8052, (交) 267-8131~9 (223·224)

◉其他 자세한것은 該當大學院 敎學課에 問議할것

東國大學校

보리수

지장보살

갑원도 함백산을 찾은 까닭은 약 30년전 그절에서 곱부할때 로 격의없이지냈던 노장스님의 추억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타계했다는 소식도 타계한후 10년이 지나서야 들었을만큼 소원했었다. 그런데 몇년 그노 전 그는 6·25전쟁 이 일어난 것을 소위 북괴군이 결박하고 숨은 국군을 내놓으라고 지독한 고문을 받고 그자신 지장보살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후 그의 입에서 지장보살의 염불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또 한 차례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북괴군에 양식을 동조했다는 죄로 수복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송장이 되었다는 증거를 들어 보였다며, 그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송장이 되었고 그때문에 쌀을 가버린 것이었다. 그는 송장이 되었으므로 나에게 그 백했다. 그는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었다.

장을 보고 그자신 지장보살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후 부터 그의 입에서 지장보살의 염불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또 한 차례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북괴군에 양식을 동조했다는 죄로 수복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송장이 되었다는 증거를 들어 보였다며, 그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송장이 되었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그백했다.

그는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었다.

〈徐景洙〉

今週一句

모래위에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화를 종종내나, 그 화가 모래위에 쓴 글자처럼 빨리 없어지는사람이다. 물위에 글자를 써도 흠러가버려, 그 형태를 남기지 않듯이 남의 욕설에도 마음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온화한 마음의 요람이다.

<佛敎聖典>

새 학생간부에 바란다

사설

지난 5월1일 각 학과의 학과·학년학생장 후보명록으로부터 시작된 본교의 제10대학도호국단간부선거가 6월2일의 총·부학생장 선출이 끝남으로써 대체로 완료되었다. 물론 모 단과대학의 재선거와 몇개학과의 보궐선거 실시가 남아 있으나 그 외에 이미 선출된 각급 학생장들은 본교 학도호국단 학교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동 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총장의 임명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번의 선거는 전에 없이 상한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이는 요즈음 학생들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당면과제들이 대단히 중차대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겠다. 그러나 그 어느때보다도 이번의 선거가 열기를 내연하면서도 조용하고도 질서있게 실시된 것은 본교 학생들의 자율적인 역량이 대체적으로 견실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의 선거과정에서는 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었고 대학의 자율화문제에 대한 시비도 있었으며 그동안 학도호국단일반학생들의 여망에 부응지 못했다는 비판과함께 여러가지 지·후생의문제들도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로서 당연히 제기할직한 것들이라할 것이다. 대학이 국가사회와 격리된 외딴섬이 아니나만치 국가사회의 법질서를 초월한 곳일 수는 결코 없지만 대학은 또한 학문적인 양심과 지성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학문적차원에 걸토하고 연구하며 논의할 수 있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수집단이기도 하겠다.

더구나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하의 대학 자체 안에서 학문공동체로서의 여건과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한 관계를 지닌 위와 같은 문제들이야말로 비단 학생들만의 관심의 대상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대학인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그 동안 자율화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보여준 양태와 방식을 고려할 때 대학내의 제반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진정 대학인답게 지성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것이 성숙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가사회의 법질서를 초월한 것보다 진보적인 자율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겠다. 그러나 그 성인을 자처하면서 그 사고방식과 행동의 양태가 비지성적이라면 자가당착도 너무 심하다 할 것이며 민주를 외치면서도 자기의 주장이나 행동만이 옳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비민주적인 형태라하겠는가.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전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민주주의적으로 영위될 때 꽃필 수 있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상호존중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공감대와 공동의 사고영역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진정한 대화가 없이는 성장할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없이는 현재 대학이 안고있는 자율화의 과제도 원만하게 달성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역사적 과제도 새롭게 제기된다는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지하다시피 자율화를 어떻게 뿌리내려 신장시키느냐일 것이다. 새로이 출범하는 제10대의 학도호국단 간부들에게 짊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도 바로 이 문제라 할것이다. 바라건대 새로 선출된 부들은 학생들의 열과 포부를 수렴하면서 진정 민주적인 방식으로 본교의 자율화신장에 초석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의 일부수행에있어 때로는 어려움도 따를 것이며 난관이 있을지도 모를다. 그러나 불굴의 인내와 용기로 모든 비지성적이고 비민주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대학의 본질인 면학풍토 조성과 이를 위한 제반여건을 신장시킨데 있어서 학생사회의 자율적 역량을 건전하게 집결시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이다.

<英文學배경으로서의>

兩大人間이해전통

두 영역, 至高의 人間을 神으로 해석

그리스 전통은 관찰과 인식이 중요

金 한

<文科大교수·英文學>

선구문화의 저변에는 히브리·그리스의 양대전통이 깔려있다. 본란은 양대 사유전통이 할류, 헬레니즘화하기 이전인 BC9C~3C 사이의 神·세계·인간에 대한 특징을 비교한것이다. 자세한것은 「영어영문학」 V·27·No4 (P·P649~672) 를참조바란다. <편집자註>

Ⅰ. 序

선구문화일반, 나아가 선구문화일반(철학, 사회사상, 정치사상을 포함한)의 저변에는 두가지의 커다란 사상전통이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다.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로 알려진 이 양대 사유전통의 특징에 대한 윤바른 파악은, 곧 영문학을 포함한 서양문화이나 온 자리 파악뿐 아니라, 선구문화에서 배우고자하는 입장에 선 자의, 사고작용, text해석, 말이해에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 이양대사유전통에 대한 이해의 긴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정작 기본지식으로서의 양자의 특징에대한 주의깊은 관찰은 오히려 간과되는 속에서, 흔히 별해져온 왜곡된 선입관이나 잘못된이해는 수정되지 않은채, 우선 양자를지칭하는 명칭자체부터 재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사상은 BC 900년대의 Homer로 부터 BC 300년대의 Aristoteles에 이르는 600년간에 걸쳐 생겨된 것으로서, 언어로는 인도게르만 언어권에 속하는 그리스 사유권을 지칭하며, 히브리사상은 BC 900년대로부터 BC 300년대 사이의 600년간에 형성된 사상으로, 언어로는셈어권에 속하는 구약이 성립된 히브리 사유권을 지칭한다. 헬레니즘이란 BC 300년대에서 AD 300년대 사이의 600년에 걸쳐 존속한 로마제국의 시기에 히브리사상과 그리스사상이 합류하여 형성된 두사상의 절충주의적 유산이다. 히브리즘과 대조되는 사상으로서 그리스사상이란고 불러야 마땅할진대, 왜 우린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라고 잘못 부르기를 계속해 오는지 이것도 폭어야할숙제의하나같다.

本考에서는 알렉산더대왕의 세계정복이후 그리스사상과 히브리사상이 합류·절충되어 헬레니즘화(Hellenize)하기 이전인 BC900년대로부터 BC300년대사이의 시기에 드러나고 있는 양사유영역의 고유한 神이해·세계이해·인간이해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배경

그리스영역에서는 Homer가 그전까지 내려오던 민담, 속담, 전설을 모아 서책으로 펴낸 BC900년을 문화의 시작으로 볼수 있다.

이 시기에 그리스에는 무척많은 물음이 주위에 대해 물어졌다. 별의 진행등. 이렇게 물음이 밖으로 향해 던져진것 시기를 자연과학의 시초라고할 수 있다. 그 이후 이 물음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물음을 외부에서 내부로돌려놓고 있는 Socrates에 이르게된다. 형이상학 (meta-physics) 은 물리학(physics) 다음에 오는 (meta) 철학으로서 학문의 최고절정이 되고 있다.

이 그리스 전통에서는 관찰과 인식이 중요시되고 학문이라는 특수한 사고형태, 구조가 나왔다. 說, 세계관, 論 등.

히브리 사유권에서는 민담의 시절이었고 BC 300년경에는 Yahwist에 의해 다니엘서만 제외하고 구약(Old Testament) 이 완성되었다. 구약역시 여러 역사학자에 의해 쓰여졌으나 그 주된는 역시 히브리적사유로 말미암아 (meta) 철학이 없는 양대사상, 정치사상을 포함한의 저변에는 두가지의 커다란 사상전통이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다.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로 알려진 이 양대 사유전통의 특징에 대한 윤바른 파악은, 곧 영문학을 포함한 서양문화이나 온 자리 파악뿐 아니라, 선구문화에서 배우고자하는 입장에 선 자의, 사고작용, text해석, 말이해에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 이양대사유전통에 대한 이해의 긴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정작 기본지식으로서의 양자의 특징에대한 주의깊은 관찰은 오히려 간과되는 속에서, 흔히 별해져온 왜곡된 선입관이나 잘못된이해는 수정되지 않은채, 우선 양자를지칭하는 명칭자체부터 재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사상은 BC 900년대의 Homer로 부터 BC 300년대의 Aristoteles에 이르는 600년간에 걸쳐 생겨된 것으로서, 언어로는 인도게르만 언어권에 속하는 그리스 사유권을 지칭하며, 히브리사상은 BC 900년대로부터 BC 300년대 사이의 600년간에 형성된 사상으로, 언어로는셈어권에 속하는 구약이 성립된 히브리 사유권을 지칭한다. 헬레니즘이란 BC 300년대에서 AD 300년대 사이의 600년에 걸쳐 존속한 로마제국의 시기에 히브리사상과 그리스사상이 합류하여 형성된 두사상의 절충주의적 유산이다. 히브리즘과 대조되는 사상으로서 그리스사상이란고 불러야 마땅할진대, 왜 우린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라고 잘못 부르기를 계속해 오는지 이것도 폭어야할숙제의하나같다.

本考에서는 알렉산더대왕의 세계정복이후 그리스사상과 히브리사상이 합류·절충되어 헬레니즘화(Hellenize)하기 이전인 BC900년대로부터 BC300년대사이의 시기에 드러나고 있는 양사유영역의 고유한 神이해·세계이해·인간이해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文科大교수·英文學>

Ⅲ. 인간과 神(神觀)

히브리영역에서 세계와 인간은 철저히 신에 대한 그 관계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리이스의 경우는, 히브리의 경우는 신이 생각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영원한 신으로서의 피안성, 초월성에 귀착되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경우, 신의 초월성이란 신의 절대적인 권위, 즉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끊임없는 신의 미래성으로 생각된 것이었다.

반면 그리스인의 경우 그것은 물질적 감성적인 것의 영역과 대조되는 정신의 피안성으로서 생성과 소멸에 대립되는 무시간성으로 생각되었다. 그리스인의 사고에 있어, 신이란 우주를 조화된 현재로 현성해 주는 그런데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이 가능한 신의 법칙이다. 그리스인은 우주적 유기체의 습관性에서 신의 지혜를 읽었다. 법칙을 신으로 본 그리스적 이해는 인격을 신으로 본 히브리적 이해와 대조적이다.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신은, 영원한 신이되, 역사에서 역사하는 행위하는 신이다. 히브리인은 전능한 세계의 창조적으로 시간은 공간에 흡수당해버리는 이상, 결국 그리스인의 자연은 공간이다. 그리스인은 합리성을 통하여 도달한다. 합리성이란 곧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했을때 내가 성취되는것이라면, 가령 「終我」란는가 「合一」이란든가 「신비주의」는 그리스 영역에 속한것이자 명해진다.

이에 반해 히브리인은 인식에 의해 신의 지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신의 뜻은 알수 없고 오직 그 말에 경탄할 뿐이다. 이때 「알 수 없다」는 말은, 不可知論이라기 보단는 놀라움과 경탄을 의미한다. 히브리인은 神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神앞에서 놀란다. 神은 인식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아니라 인식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다.

그리스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시간은 공간에 흡수당해버리는 이상, 결국 그리스인의 자연은 공간이다. 그리스인은 합리성을 통하여 도달한다. 합리성이란 곧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했을때 내가 성취되는것이라면, 가령 「終我」란는가 「合一」이란든가 「신비주의」는 그리스 영역에 속한것이자 명해진다.

이에 반해 히브리인은 인식에 의해 신의 지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신의 뜻은 알수 없고 오직 그 말에 경탄할 뿐이다. 이때 「알 수 없다」는 말은, 不可知論이라기 보단는 놀라움과 경탄을 의미한다. 히브리인은 神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神앞에서 놀란다. 神은 인식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아니라 신앙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다.

그리스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시간은 공간에 흡수당해버리는 이상, 결국 그리스인의 자연은 공간이다. 그리스인은 합리성을 통하여 도달한다. 합리성이란 곧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했을때 내가 성취되는것이라면, 가령 「終我」란는가 「合一」이란든가 「신비주의」는 그리스 영역에 속한것이자 명해진다.

이에 반해 히브리인은 인식에 의해 신의 지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신의 뜻은 알수 없고 오직 그 말에 경탄할 뿐이다. 이때 「알 수 없다」는 말은, 不可知論이라기 보단는 놀라움과 경탄을 의미한다. 히브리인은 神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神앞에서 놀란다. 神은 인식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아니라 신앙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다.

<英文學배경으로서의 二大思想傳統>

		그리스	히브리
1. 관심		存在 (근원)	實存 (삶)
주제	성격	형이상학적 →철학	역사적 →종교
2. 인간 파악		특일적파악: 「인간은 무엇이냐?」	특정한 구체적물음: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성격	· 무시간적이고 항목적적 · 개체는 전체와일치	· 순간순간 달라지는관계 · 특정한 시간, 특정한상황의 개인인, 「그때의 너, 나」는 다른개인
		· 인간개념을 문제시 · 제3인칭의물음	· 너, 나의 관계를문제시
3. 인간 형성		· 匠人이자료를 이미가지고서 理想像에따라빚음	· 창조주가 無에서 그의 意志에따라 창조
	관계	· 수공업자와 흙의관계	· 상인과 상인의관계 (신뢰가토대)
4. 윤리적용어들	출처	· 수공업과 조형미술	· 교역 (일부는 法과 제사에서)
	잔주언급되는 단어들	· 잘생긴, 조화롭이루, 균형잡힌, 알맞는, 세련된	· 정직한, 성실한, 신뢰할수있는, 온전한
	해석	상대적	절대적
善과 惡	관계	· 연속적, 발전적적: · 惡을 잘키워나가면 선이됨 · 스스로 善에 이를수있음	· 단절적: · 선과악은정면으로부딪침 (선과악은나전체와나전체의사이에서생긴용어) · 전적으로 상대방의 서에 달렸음
罪		· 배신, 실수: 목표에서빗나간것 · 자신의 노력으로 바로잡음 · 교육의 대상	· 배신: 아주관계가 끝나는것 · 돌년것을 다시 잇는것 (돌년삼대밖의 용서에서는 해서만 가능) · 벌 또는 용서의대상
5. 神개념		Form-Giver (형태제공자)	Creator (창조주)

大学閑話

<文科大교수·宗敎哲學>

金 恒 塏

事業과 道

요즈음 손님을 접대하는 엽소에 가보면 감 「사장님」이라는 칭호를 듣는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어서 「나는 사장이 아니고 訓長일세」라고 고쳐주었지만, 골곰히 생각해보니, 그 종업원의 말이 아주 틀린것도아니다. 現代는 사업가들의 시대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업가 아닌 사람이 없을성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알고있는 일이지만, 이른바 「育英事業」에착수하여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분들도 있고, 宗敎事業에착안하여 큰 자산가가 된 분들도 없지아니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민중을 주인이 되게하여 일어났던 깃발아래 革命事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민중위에 군림하는 위치를지킨 이들도적지않다. 各種의文化, 이밖에도이른바事業에착수하여 적어도 걸으는 뜻있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事業家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사업이란 他者와의 대체 무엇을 위할이가? 결국 사업이란 자기의 삶을 운영하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풍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보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은 모든 사람이 보다 보다 좋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되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電算科, 문교부 지정학과로

특정분야의 학문발전 기대커

本校 工科大 전자계산학과가 84년도 문교부중점지원 10개 대상학과중의 하나로 지난달 25일 지정되었다.

이 중점지원학과는 문교부가 전국 각대학을대상으로 복자적 우월성과 특정학문분야의 선도적연구로 학문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지정한것으로 본교의 전산과가선정됐다.

전산과는 지난 72년에 신설된 이래 국내정보산업을 이끌어나갈 정보처리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으며, 콜퓨터 학문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복수전공 신청점수 부전공 신청도점해

교무처에서는 84학년도 복수전공및 부전공이수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복수전공

▲접수 기간=오는 4일~9일

▲접수처=학적과(2부대학 교학과)

▲지원자격=81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8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매학기 취득학점이 17점이상이고 평점이 3.0이상인자 (복수전공 이수 지원셔1부 첨부)

◇부전공

▲접수일=오는 12일~15일

▲신청방법=부전공 신청서에 부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과에접수

▲지원자격=81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현재2·3·4학년 재학생

경북美展서 특선

佛美科 재학생 대거入賞

지난달28일 발표된 「제11회 경북美展」에서 배현철(83년 佛美科졸) 동문이 특선을 차지하는등 경주대 불교미술과 재학생, 동문2명이 입상했다.

지난달 29일 오후2시 동국관(1301)에서 열렸다.

일반사회의 경영정보를 얻기위해 실시된 이날강연회에서는 기업 경영의 전반에관한 소개와 함께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올바른 대응책등이 제시되었다.

전임교수 연구논문모집

출판부 2학기中 저서5권발행

出版部에서는 금년도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장 추천을 받은 전임교수급이상 교수의 연구도서 5권을 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출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이 안은 교수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논문 분야별 제한은 없으며, 분량은 1천3백매에서 2천매내외이고, 8월31일까지 논문을 마감하여 2학기중에 발간하게 된다.

師範大 체육대회

교육학과 종합우승

師範대학장旗 쟁탈 「사범인체육대회」가 지난달 20일 裵鍾根(敎育學科(학장)씨의 「경영정보체일과 역할」이란 주제아래 지난달29일오후2시 동국관(1301)에서 열렸다.

경영과 강연회

박춘거氏등 연사로

경산대학 경영학과 주최 「경영학강연회」가 박춘거(유한양행사장)씨의 「현대기업의 경영이념」이청우(쌍방울 부사장)씨의 「경영정보체일과 역할」이란 주제아래 지난달 28일 오전9시 일본사회학관에서 실시된다.

사·행시·의시·공인회계사등 각종 국가고시준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1학년의 경우 외국어(영어·일어·독어중 택일)와 할국사등 두과목이며, 공인회계사준비반만 영어와 경제원론을 치른다.

또한 2·3학년은 각 고시별 전공과목과 이를 시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학생과에서 교무, 접수하고있다.

복지시설 임대료 20% 인상

복지장학생 수혜혜택 늘어나

출처에서는 구내식당 이 휴게실을 교내후생복지 시설의 임대료를 평균20%인상했다.

지난 2월28일부로 임대료 증가액은 총 1천4백50만4천원이되고 있다.

한편 복지시설의 임대료 인상에 따라 학생과 장복지장학금을 증액 수혜자의 폭을 종전의 91명에서 1백4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慶州大 도서관 2백석 증설

"열람석확보에 계속노력"

慶州大學 고시반원 선발시험 국가고시1차시험모의고사가 내달 1일 오전9시 일본사회학관에서 실시된다.

사·행시·의시·공인회계사등 각종 국가고시준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1학년의 경우 외국어(영어·일어·독어중 택일)와 할국사등 두과목이며, 공인회계사준비반만 영어와 경제원론을 치른다.

또한 2·3학년은 각 고시별 전공과목과 이를 시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학생과에서 교무, 접수하고있다.

學問硏究의 成長계기 됐으면…

開院 6個月맞은 漢方病院

大學의 기능은 학문연구의 場으로서 뿐 아니라 사회참여등 여러방면으로 수렴되어지고 있다. 즉大學에 설치된 부속병원의 경우, 상아탑적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은채 지역봉사기능을 擴大함으로써 사회와 大學의 연계 역할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本校 부속 漢方病院 지난 5月29로 개원 6개월을 맞았다. 지난해 11월29일 개원한 부속한방병원은 개교이래 최초의 부속병원이라는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東洋醫學인 漢醫學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本校와 맥락을 함께하고있는 점도 간과할수없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부속 한방병원은 「설립초기」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한의학발전과 지역봉사에 일익을 담당하며 어느정도 그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부속한방병원의 인력 및 의료기구시설이나 진료진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있다.

이통계는 한부평균 50~60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기위해 나타나있는데 환자를 수용할수있는 병실은 25개뿐이며, 그나마도 전혀 간동되지않고 있는실정이다. 즉大學에 설치된 부속병원의 경우, 상아탑적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은채 지역봉사기능을 擴大함으로써 사회와 大學의 연계 역할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漢方病院 지난 4월 개원이래 한방병원을찾은 환자수는 3月7日까지일평균에 의하면 2천5백28명이었는데 4·5月중에 꾸준히 증가, 개원 6개월째인 5月29日까지의 총환자수는 4천9백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월별로 나누어 보면 3월에 8백88명, 4월에 8백5명, 5월에 8백21명 등이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경주, 월성지방의 지역주민이었다.

이는 개원초부터 실시되어온 지역주민 할인혜택과 활발한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3·4·5월에는 거의 고정적인 수치를 보여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의료기구시설이나 진료진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있다.

이통계는 한부평균 50~60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기위해 나타나있는데 환자를 수용할수있는 병실은 25개뿐이며, 그나마도 전혀 간동되지않고 있는실정이다.

개원당시 병원측은 제1내등 7개 진료과목의 개설과 함께 중풍센타와 한방요법실등의 시설을 갖추고 15명의 진료교수로서 환자진료를 담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료교수 4명과진료의2명, 간호원1명, 간호보조원 3명만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봉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1차적인 문제가 환자진료에 있음은 부언의 여지가없다. 그럼에도 환자의 치료를위한 수용태세가 제대로 갖춰있지않다면 병원설치의 본래 의미는 무색해진다.

진료진 보강에 대해 병원측은 의료기구시설이나 진료진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있

20세기 世界文學의 흐름

>10<

維新體制下에선 우회적투시방법 선택
서구문학移植、傳統遺産과의 접목실패

<경주대교수·문학평론>

金善鶴

한국문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근대적 의미에서의문학과 만나게 된다。이 말은 20세기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말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20세기 한국문학이 자체로서 축적 할수있는 현대문학적 에너지의 축전에 매우 불리한조건을 애당초 갖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된다。

신소설과 신체시로 말해지는 현대 한국문학의 모태는 그것이 문학인가 문학적인 단계에 머문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흔히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만약 그것이 신라가요와 고려속요、뿐만아니라 시조、가사、구비문학 및 한국한문학이 가졌던 폭과 깊이와 자양분들을 섭취하여 주었더라면 이같은 언표는 매우 주었던 한 포말로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갑오개혁으로 시작되는 세기말의 폐쇄적 왕조사회 붕괴와 국권상실의 전야에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과거에서의 탈출이란 가치관은 조야한 일본적 서구 근대화의 모델을 부작정 이 땅에 끌어 들였다는 점과 긴밀한 함수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인직의 신소설과 최남선의 신체시는 그래서 과거에서의 탈출에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문학터전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그것은 차라리 새것으로 향한 언어의 끝없는 집적이었지 당당한 한편의 소설문학、시문학으로 일적시키기에는 너무 미숙하였었다。

20세기 한국문학 출발의 이같은 취약성은 이광수의 계몽주의라고 통찰될 수 있는 일련의 소설에 와서도 도덕적 가치관의 정립과 소설문학 확립이라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않을수 없게했다。김동인의 <감자>에서부터 <김연실전>에 이르는 소설들은 그러므로 도덕적 가치관 정립에서 소설문학 확립 쪽으로 한국문학의 흐름을 돌려놓게된다。채만식、박태원으로 연장시킬수 있는 현진건들의 자세들은 이같은 양극으로부터의 변증법적 지양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의 동광이 한국시문학에 전화점을 마련했다는 말은 설득한 단정일 수 있다。김억、장두철 등의 노력과 황석우、이상화 등의 많은 문학청년들이 가졌던 열정의 축적이 김소월이란 탁월한 시적성과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소월이야말로 과거로부터의 무작정 탈출이 아닌 한국문학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실증시켜준 희생이 될 것이다。

정지용、이상、김기림으로 대표되는 실험정신의 소유자들은 서구라고 말해지는 세계문학의 한 자락을 분명히 감싸쥐려고 했었다。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로부터의 부단한 탈출이란 명제를새것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탐닉으로 시종일관 시키고 말았다。표피적인 경험의 파악만으로 외국문학、특히 선구문학을 한국문학에 이식하려했기 때문에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문학 유산들과의 행복한 접목을 시도하려는데는 관심을 전혀 돌리지 못하고 말았다。이같은 그들의 자세는 한국문학을 서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문학의 이론으로 종속시키려는 60년대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는 듯한 문학이론전영의 모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권회복과 분단、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은 20세기 한국문학에 결정적 충격을준 매듭의 하나였다。돌리지 않는 이 매듭을 풀려고 쉼없이 언어와 투쟁한자취를 이범선의 <오발탄>에서부터 최인훈의 <광장>、홍성원의 <남과 북>、전상국의 <아베의 가족>、김원일의 <노을>·<불의체전>에 이르기 까지의 많은 소설들에서 찾을 수 있게된다。

▲남북분단의 비극은 20C한국문학에 충격을준 매듭의 하나였다。

상장의 비극은 20세기 한국문학에 결정적 충격을준 매듭의 하나였다。돌리지 않는 이 매듭을 풀려고 쉼없이 언어와 투쟁한자취를 이범선의 <오발탄>에서부터 최인훈의 <광장>、홍성원의 <남과 북>、전상국의 <아베의 가족>、김원일의 <노을>·<불의체전>에 이르기 까지의 많은 소설들에서 찾을 수 있게된다。

이 매듭을 풀어보려는 문화적 노력은 그것이 상황에 따라 그 발화과 깊이를 달리하면서 계속 한국문학의 주변 지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한국문학은 이러한 지배력에 저항하는 자국을 남길 것이라 전망되어지기도한다。자유당 정권의 전횡을 무너뜨린 4·19의 감격을 어언간 자리에서 현상시켰다。그것은 이후 시의 형식보다 정신에 보다 결도하는듯한 파격적시론<시인이여、침을뱉으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목표달성으로 기본권을 유보당했던 유신체제에 저항한시인들—김지하、조태일、신동엽등에게 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특히 김지하의 시<오적>·<담시>·<오적>·<담>은 그것의 풍자성이 구비문학및 판소리의 가락에 근거하고있음으로해서 한국현대시 새 국문학의 흐름을 돌려놓게된다。

열상섭과 현진건으로이어져 채만식、박태원으로 연장시킬수 있는 현진건들의 자세들은 이같은 양극으로부터의 변증법적 지양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의 동광이 한국시문학에 전화점을 마련했다는 말은 설득한 단정일 수 있다。김억、장두철 등의 노력과 황석우、이상화 등의 많은 문학청년들이 가졌던 열정의 축적이 김소월이란 탁월한 시적성과를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소월이야말로 과거로부터의 무작정 탈출이 아닌 한국문학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실증시켜준 희생이 될 것이다。

정지용、이상、김기림으로 대표되는 실험정신의 소유자들은 서구라고 말해지는 세계문학의 한 자락을 분명히 감싸쥐려고 했었다。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로부터의 부단한 탈출이란 명제를새것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탐닉으로 시종일관 시키고 말았다。표피적인 경험의 파악만으로 외국문학、특히 선구문학을 한국문학에 이식하려했기 때문에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문학 유산들과의 행복한 접목을 시도하려는데는 관심을 전혀 돌리지 못하고 말았다。이같은 그들의 자세는 한국문학을 서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문학의 이론으로 종속시키려는 60년대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는 듯한 문학이론전영의 모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권회복과 분단、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은 20C한국문학에 충격을준 매듭의 하나였다。

<차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중국
5. 독일
6. 프랑스
7. 러시아
8. 이탈리아
9. 스웨덴
10. 韓國

언니일요일

조민환

흐르는 물에 釘을 박는다
완강하다
내려치는 망치의 힘이
부드럽게 물이 되어 출렁이고
부드러움이 頑强함이 되는
어느 일요일 나는
흐르는 물속에 꿈을 가두고
거리에 나선다 자꾸
손바닥에 고이는 땀을 옷에 문지르며
투명한 빛의 물방울에 떠밀리는
사람들의 슬픈 어깨를 보다가
말없이 집에 돌아와 흐르는 물에
釘을 박는다
내려치고 박아도
쪼개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물의 힘센 근육 아파 아파
낮은 신음 울리는 꿈의 머리위에
頑强함이 슬픔이 되는 어느 일요일
釘을 박는다。

<文科大 國文科>

文化批評

대학문화의 共同體化

대학인은 현실속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찬대 노력해야 한다。바로 이러한 활동이 대학문화의 출발이다。이 대학문화는 기존문화의 왜곡위협을 안고있는 그 이유로 첫째、맹목적인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개체문화가 그 특징이다。즉 스스로 무기력함과 소외감을 느끼며 개인의 안일속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 현상인 향락적이고 마취적이며、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속성을 띤 소비문화를 즐기려는 순간적인 생활태도가 만연하고 있다는 세째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짧시대의 유물인양 생각하며 외래문화를 무비판적으로 洪水적렵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네째로는 사물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는 생활이 아니라상식적으로 사고하고 상식적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소시민적인 경향이다。권태란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안일한 생활의 연장이라 할수있다。

다섯째로는 學內 써클、학회·연합기구등의 자치활동이 규제되면서 학생 스스로의 창조적행위를 쥐체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反 대학문화적 요소들로인해 오늘날 대학문화는 그꼴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대학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문화의주체는 大學人일들 확실히자각해야 할것이다。대학인이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곳에서는 올바른 대학문화 형성이 어렵다。

대학문화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속에서 새로운 현태、즉 창조성을 지닌다。또한 왜곡된 문화에 대한 비판은 물론 민족과 사회발전과 인간성회복을위한 공동노력만이 창조적일수 있다。

더우기 대학문화는 대학인만이라 시대와 사회의 현상까지 수용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이다。

여기서 대학인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적인 연대감 형성이 중요시되고있다。

다양성을 지닌 구성원들은 공동체적 場에서창조적 만남과 활동을 할 수있다。즉 상호이해、신뢰、연대의식과함께 현실에대한 공동의 책임감인 식하며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상화에 대한 주체적 맹을을창출해간다。

대학내 공동체 속에서 각 구성원은 무력감과안일에서 벗어나 역사와사회에 대한 인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진취적인자세를 가져야할도 빼놓을 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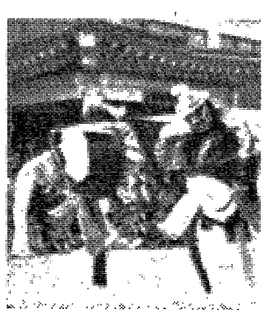
현실과 그 속에서의자기위치를 파악하여 진정한 존재양식과 행동양식을 찾아내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열며、나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문화의 제반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를 다지고 하나됨을 느끼면서 미래의 과제에 대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해 갈때 대학문화는 그 기능을다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大學文化의共同體化의 노력과 아울러그것을 우리생활에 흡수시킬 수있도록 젊은 가슴을 열어야 하겠다。

김성등 <법정대 행정학과>

향락적 消費文化 만연
民衆文化創造로 人間性 회복



▲대학문화는 民衆文化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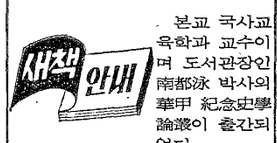
교지리

尹時林

<50>

史學論叢

南都泳博士華甲紀念集
李基東外 編



본교 국사교육학과 교수이며 도서관장인 南都泳 박사의 華甲 紀念史學論叢이 출간되었다。

如初 金庠顯선생의 題簽과 南都泳博士의 近影으로 시작되는 「史學論叢」은 韓國史篇·東洋史篇·西洋史學篇·歷史敎育篇등 5부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韓國史學은 李基東교수의 「新羅上古의 戰爭과 遊戱」등 32편의 논문이 실려있고 나머지篇에도 4편씩의 논문이 실려 있다。수많은 論文과 著書를 집필、史學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南都泳교수의 華甲을 기념하여 출간된 「史學論叢」역시、우리나라 사학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본다。

<太學社刊·978面·20,000원>

享樂산업

▲間은 시련과 고통의 역사로 긴동을 뒤흔드는 물질문명을 발견시켜왔다。그 결과로 이제 인간은 기본적 욕구인 만족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있다。우리사회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제에 도취되어버린다。

▲특히 「낡은 내가 쓰는데 누가…」하는식으로 사회전반이 관능적 향락에 도취되어버린다。

▲지난 5년간 우리사회는 향락풍토야말로 산업으로 소비되는 諸의 생활현태이 조금씩 에너지와 시간、자원의 나아지리라 믿는 수단이야말로 향락산업이 관련되는 것이다。

▲절제의 욕구는 의식주(衣·食·住)의 기본적 욕구인 의복、음식、주거의 기본적 욕구인 의복、음식、주거의 기본적 욕구인 의복、음식、주거